

장흥군, 코로나 백신접종센터 '군민회관' 선정



장흥군은 신속하고 안전한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해 시행추진단 및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접종센터를 지정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본격적

5개 팀 60여명 시행추진단·교육청·경찰서 등 지역협의체 구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접종... "안전하고 효율적 접종 시행"

로 예상되는 가운데 추진단은 접종시행을 총괄하는 시행총괄팀, 접종관리팀, 접종시행팀, 이상반응관리팀, 행정지원팀 등 총 5개 팀 60여명으로 구성되어 운영하게 된다. 장흥군은 안전한 접종 시행을 위해 장흥군 의회,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장흥종합병원, 장흥군의사회, 이장자치연합회, 여성단체연합회, 군청 총무과, 재난안전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보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기관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지역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초저온냉동 보관 백신 접종을

위한 접종센터는 주민의 이용 편리성, 이상반응 즉각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근접성과 대기공간, 접종공간, 접종 후 관찰공간의 충분성 등을 고려하여 장흥군민회관으로 장소가 선정되었으며, 백신이 공급 되면 즉시 접종이 가능하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백신접종을 위한 위탁의료기관은 기존의 국가 예방접종에 참여했던 의료기관 중 시설기준에 적합한 곳을 선정해 지정 할 예정이다. 1분기 접종대상자는 요양병원·노인 의료복지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코로나19 환자 치료 일선에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이고, 2분기 접종대상자는 65

세 이상 노인과 노인재가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이용시설 등 이용자와 종사자이며, 하반기에는 백신도입 상황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한 예방접종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하여 전 군민 70% 접종 완료율 목표에 추진할 계획이다. 정중순 군수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접종 시행에 의한 집단면역 형성을 통해 코로나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장기 유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며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지속적으로 청정장흥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 5일시장에 청년몰 조성 6월 완공...전통시장 활성화 기대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우수영 5일시장의 복합광장 조성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남의 대표적인 어시장인 우수영 5일시장에 들어서는 복합광장은 900㎡ 규모로, 오는 6월 준공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억원이 투입되는 복합광장에는 휴게광장을 비롯해 청년몰 5개소, 화장실 등이 조성된다. 특히 청년몰은 청년 창업 등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돼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우수영 5일시장은 60여개 점포가 운영되고 있으며, 일 평균 600여명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으로, 명량대첩지인 우수영 관광지화 문화마을이 인접해 관광객들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광장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이용객과 인근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청년몰 운영과 함께 각종 문화 공연 등이 열리는 복합휴게공간으로서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완도군, 수출기업 전폭 지원 나서

한국무역협회와 완도 수산물 특화 실무 교육 실시

완도군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영주)와 '2021 완도군 무역 아카데미 교육' 체결을 통해 해외 수출을 위한 기관간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다지고, 지역 특산물 특화 밀착형 수출을 위한 실무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1 완도군 무역 아카데미'는 3월 초부터 분기별 1회씩, 총 4회로 진행되며, 사전 공고를 통해 완도군 소재

이번 무역 아카데미 교육도 지원책의 일환이며, 교육은 전복과 해조류 등 완도 특산물에 특화해 진행된다. 교육 내용은 무역 계약, 대금 결제, 운송, 통관, 수출입 시물레이션, 외환 금융, 해외시장 조사,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이며, 수산물 수출 경험이 많거나 해외에서 한국 수산물을 수입한 경력이 있는 강사진을 배치하였다.

무역아카데미 관계자는 "기존 무역 실무 과정과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완도군 특산품에 맞춰 수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식품류 중에서도 수산물은 위생, 유통, 검역, 인증 등에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수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교육이 지역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기업별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 참가 업체들에게는 2022 완도군 해외시장개척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완도군 수출기업들이 국제 무역 전문가로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다음달 초부터 분기별 1회씩
30여명 대상 총 4회로 진행
무역 계약·대금 결제 등 교육
해외시장 지원사업시 가산점

수출기업 관계자 중 참가 희망자 30여명을 모집하여 무료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관내 수출 기업이 발 빠르게 수출 변화 환경을 인지할 수 있도록 임시 화상 회의실 운영, 신제품 언론 홍보 등 수출 지원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강진군, 가우도 민간투자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대상 사업계획 설명 및 의견 교환의 자리



강진군이 지난 3일 가우도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도암면 신기리 가우마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는 투자기업인 ㈜GFI개발과 개발사업지원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가우도 민간투자 사업은 가우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 강진군과 투자기업인 GFI 개발이 업무협약을 맺고 민자 약 3,700억 원을 투입해 해상케이블카 등 체험시설과 리조트, 풀빌라 등 숙박시설 등 체류형 관광시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군과 투자기업 관계자는 가우도 주민에게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들과 의견 공유 및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사업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강진=김영일기자

'나무인삼' 강진 황칠, 건강식품으로 인기

청정지역 강진에서 생산되는 황칠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황칠 제품이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비롯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 선물용으로 각광을 받으며 택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토종 수목인 황칠나무의 수피에서 추출한 수액인 '황칠'

은 과거 천연도료로 사용되었지만, 현대에 와서 한약재와 건강기능식품재료로 쓰이고 있다. 정혈작용이 산삼보다 몇십배 뛰어난 것은 물론 항암효과, 간세포 보호, 항당뇨, 노화방지, 성장촉진 및 골다공증 예방 등에 큰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진도군, 안전한 연휴 위해 종합 대책 추진

진도군이 민족 대명절 설을 맞아 군민과 귀성객이 모두 안전한 연휴를 위해 '설 연휴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코로나19 방역 ▲보건·진료 ▲재난·재해 ▲도사지역 귀성객 수용 ▲관광객 수용 등 군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 11개 대책반을 운영한다. 특히 오는 14일까지 방역수칙 완화시설과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점검과 함께 읍·면 생활방역단에서 특별방역소독도 함께 추진한다. 군 보건소는 비상진료 대책을 수립, 연휴기간 중 휴무 없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비상 상황에 대처할 계획이다. 진도한국병원 역시 연휴기간 중 선별진료소를 지속 운영하며, 응급진료 체계를 24시간 유지하게 된다. 진도=조상용기자



만나서 영광입니다!

영광의 청정자연과 어우러져 탄생한 건강한 우리 식품을 만나보세요